

2020년 충청도정에 바란다①: 소상공인편

이민정, 강수현, 송민정, 정희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minjoung1006@cni.re.kr (이민정 책임연구원)

기획연재로 발간되는 「2020년 충청도정에 바란다」는 충남의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2020년 도정 희망을 조사한 기획리포트임. 본 편은 소상공인 330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애로사항 파악 및 정책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1. 충남 소상공인 현황 및 조사개요
2. 충남 소상공인 경영환경
3. 충남 소상공인 지원사업 평가
4. 충남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
5. 결론 및 제언

요약

- ◀ 2019년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상공인이 많았고 202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경영상태가 침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 2020년 경영상태 침체 예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3%
- ◀ 민선7기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민선6기와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는 긍정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2019년 가장 만족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발행이었음
 - 민선6기와 비슷하다 53.9%, 좋아졌음 28.5%로 전반적으로 민선 7기 지원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 2020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입을 충남도에 희망하고 있음
- ◀ 현재의 애로사항 해결형 지원사업, 현물현금 직접지원형 사업과 더불어 판매채널 다변화 지원,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통해 판로확보, 경영지원 등 소상공인의 체질개선에 지원 필요함
 - 장기적 경기불황 지속과 업계의 경쟁심화로 인한 부정적 경영환경 개선의 필요
 -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애로해결과 직접지급형 사업이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오프라인에서 판매채널 다변화와 같은 체질개선도 함께 필요

01

충남 소상공인 현황 및 조사개요

1. 충남 소상공인현황

- 충남의 소상공인·자영업자¹⁾는 2017년 기준, 사업체수 130,756개 사업체 및 종사자수 257,572명으로 집계됨
 - 도내 사업체의 87.7%, 종사자수의 31.9%를 차지

[표 1] 충남 시군별 소상공인 업체수 및 종사자수(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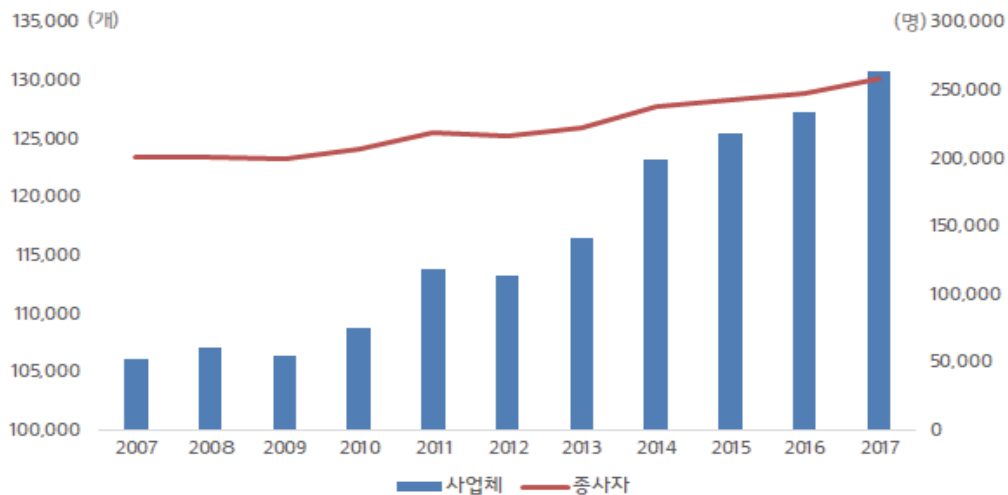
(업체수)							(단위: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17,541	21,322	6,934	7,090	16,503	9,812	8,395	1,757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988	4,740	3,792	3,670	2,249	6,335	5,542	5,086

(종사자수)							(단위:명)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34,258	43,881	13,961	13,583	35,862	18,540	16,235	3,386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9,292	9,472	6,959	6,570	4,422	12,211	9,698	9,242

출처) 소상공인마당HP 통계정보

1) 소상공인 :

자영업자 = 국세통계의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를 의미



[그림 1] 충남 소상공인 · 자영업자 추세

- 충남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연평균성장률 2.1%). 종업원수 증가추세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 (연평균성장률 2.6%)
- 업종별로 사업체수가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제조업→운수업→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순이며, 상위 5개 업종의 소상공인 비중이 전사업체수의 81.8%, 전종사자수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5개 업종에 대한 세부적 정책분석이 요구됨
- 충남의 자영업 신규 창업자수 및 창업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폐업률 수준은 2017년 기준 14.4%로 전국과 비슷한 추세임
 - 2017년도 기준, 자영업자 신규 창업자 수는 전국 1,022,802명 충남 46,265명이며, 충남의 경우 2012년 및 2013년은 전년도 대비 신규창업 증가율이 감소폭이었으나, 201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2017년의 경우 전국은 신규 창업 증가율이 감소한데 반해,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 2017년 기준, 충남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4.4%로 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2년 전국 대비 다소 높긴 했으나, 이후 전국과 비슷한 수준

[표 2] 전국 및 충남의 자영업 신규창업 및 폐업률

구 분		신규창업자수(인) / 창업증가율(%) / 폐업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국	신규창업자수	956,409	926,558	1,015,619	1,068,313	1,100,726	1,022,802
	창업증가율	- 3.82	- 3.12	9.61	5.19	3.03	- 7.08
	폐업률	16.4	15.7	14.5	13.9	16.2	14.4
충 남	신규창업자수	36,990	36,728	39,826	42,627	43,009	46,265
	창업증가율	- 7.10	- 0.71	8.43	7.03	0.90	7.57
	폐업률	19.8	15.6	13.9	13.7	15.9	14.4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주1) 자영업자 폐업률 = 폐업 자영업체 수 / (t-1)년도 총 자영업체수

- 충남 소상공인 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볼 때, 업종 및 현 영업상태, 사업기간, 총 직원 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세부분석이 요구됨

2.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충남 소상공인의 2019년도 정책만족도 및 2020년도 정책희망과 정책희망방향을 파악
 -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도출과 관련한 소상공인 현황파악, 경영애로사항, 희망시책 등에 대하여 업체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자 함

2) 조사개요

- 충남도내 소상공인 3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개요 및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다단계 군집추출법으로 조사지역 내 업종, 지역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확률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시행함.

[표 3]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수립에 제언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조사지역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표본크기	330개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pm 5.39\%$ p)
표본추출방법 및 프로세스	다단계 군집추출법으로 조사지역 내 업종, 지역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확률적으로 선정함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조사지역 내 소상공인
조사기간	2020. 02. 05. ~ 2020. 02. 19. (14일간)

[표 4] 설문표본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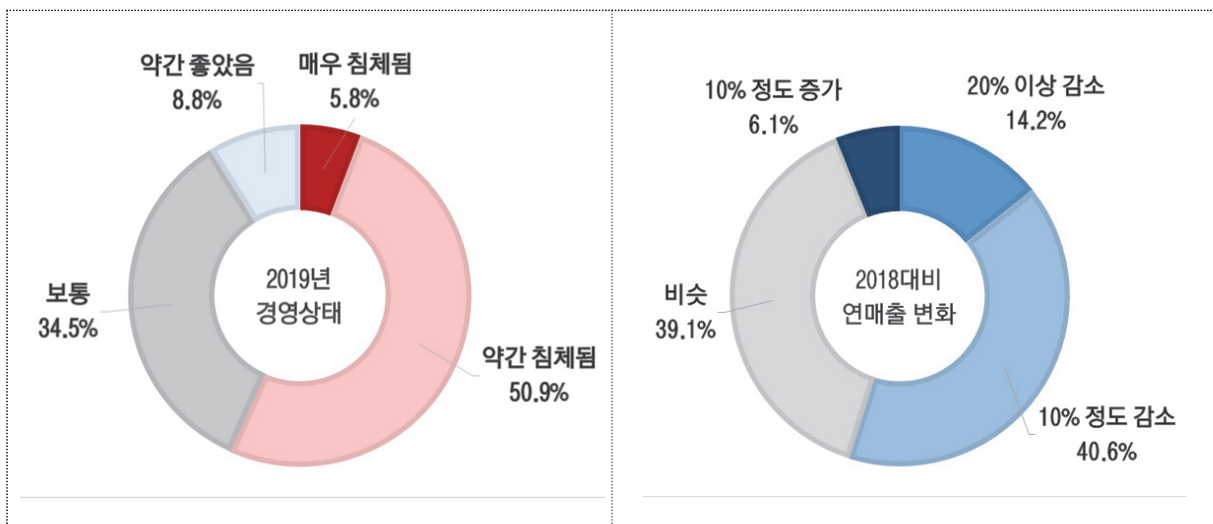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업종	제조업	25.2%	총 직원수	1명	27.0%
	도매 및 소매업	25.5%		2명	42.4%
	음식 및 숙박업	24.5%		3명	22.1%
	서비스업	24.8%		4명	5.8%
현 영업 상태	개점초기/시장진입단계	2.4%		5명	1.5%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9.7%		6명	1.2%
	손익 분기점을 넘은 상태	31.8%	사업장 소유 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69.1%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	51.8%		보증금 없는 월세	3.6%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	4.2%		전세	3.6%
영업 이익률	10% 미만	8.5%		소유	23.6%
	10~20% 미만	43.6%	연매출	3000만원 미만	2.1%
	20~30% 미만	30.9%		3000~5000만원 미만	8.5%
	30~40% 미만	16.7%		5000~1억원 미만	19.7%
	40% 이상	0.3%		1억원~2억원 미만	26.7%
사업 기간	3년 미만(2017이후)	10.9%		2억원~3억원 미만	19.4%
	3~5년 미만(2015이후)	7.9%		3억원~5억원 미만	15.2%
	5~10년 미만(2000이후)	68.5%		5억원~10억원	6.1%
	10~20년 미만(1991이후)	10.9%		10억원 이상	2.4%
	20년 이상(1981이후)	1.8%			

02

충남 소상공인 경영환경

1. 2019년 경영환경

- 2019년 경영환경에 대한 응답은 ‘침체’라는 부정의견이 높게 나타남
 - 경영상태가 침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약간 침체 50.9%, 매우 침체 5.8%)로 약간 좋았음 8.8% 보다 높았음.
 - 2018년 대비 연매출의 변화는 감소 54.8%가 증가 6.1%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음
 - * 10% 정도 감소 40.6%, 20% 이상 감소 14.2%, 10% 정도 증가 6.1%
 - * 도소매업이 매출액 감소를 가장 많이 응답함 (총 63.1%).
 - * 음식및숙박업에서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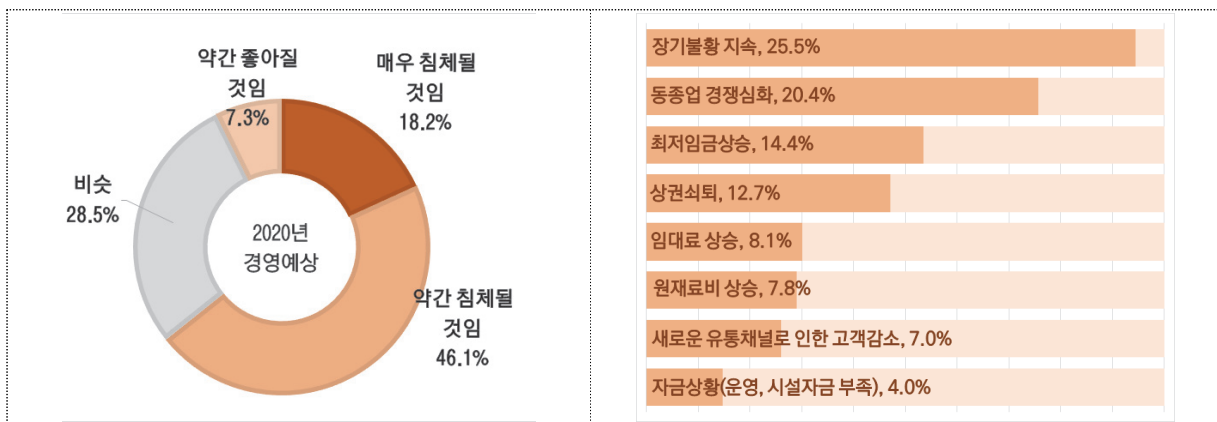
[그림 2] 소상공인 체감 경영상태

[표 5] 업체특성별 경영상태 응답률

구분		20% 이상 감소	10% 정도 감소	비슷	10% 정도 증가	전체
업종	제조업	13.3%	39.8%	38.6%	8.4%	100.0%
	도매 및 소매업	10.7%	52.4%	28.6%	8.3%	100.0%
	음식 및 숙박업	19.8%	39.5%	37.0%	3.7%	100.0%
	서비스업	13.4%	30.5%	52.4%	3.7%	100.0%
현 영업 상태	개점초기/시장진입단계		12.5%	87.5%		100.0%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9.4%	25.0%	56.3%	9.4%	100.0%
	손익 분기점을 넘은 상태	2.9%	9.5%	71.4%	16.2%	100.0%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	19.9%	63.2%	17.0%		100.0%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	50.0%	50.0%			100.0%
전체		14.2%	40.6%	39.1%	6.1%	100.0%

2. 2020년 경영환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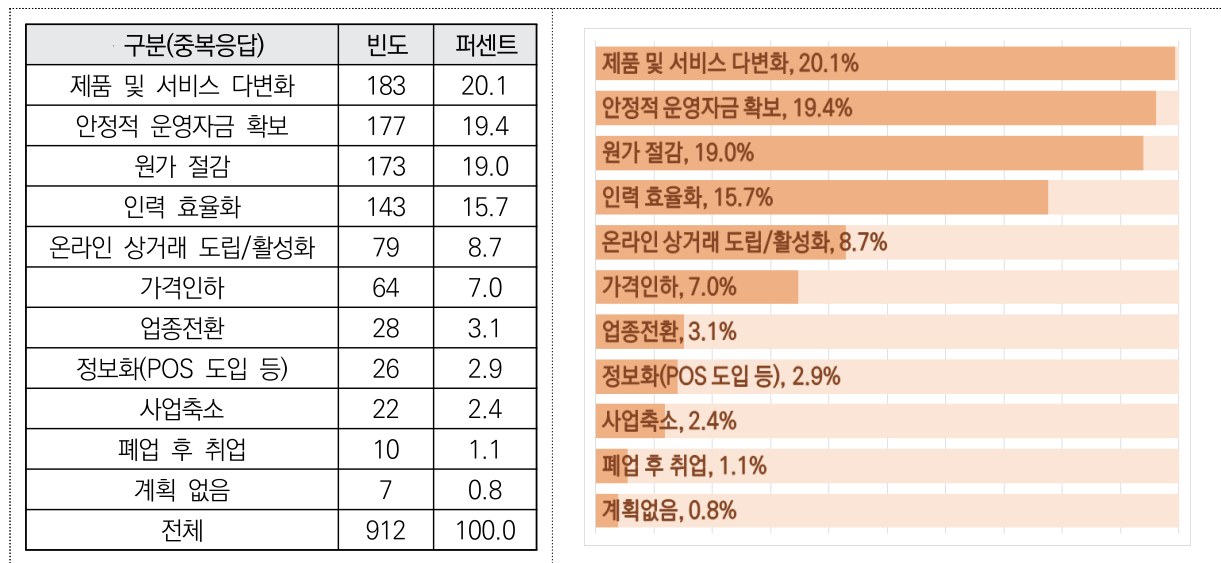
- 2020년의 예상 경영환경에 대한 응답도 침체할 것이라는 부정의견(64.3%)이 긍정의견(7.3%)보다 높게 나타남
 - 약간 침체 46.1%, 매우 침체 18.2%, 약간 좋아질 것임 7.3%
 - 2020년의 경영환경은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경기불황지속, 동종업 경쟁심화, 최저임금상승, 상권쇠퇴, 임대료상승, 원재료비 상승, 새로운 유통채널로 인한 고객 감소, 자금상황(운영, 시설자금 부족)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장기적 경기불황의 지속과 업계의 경쟁심화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림 3] 2020년 경영환경 예상

3. 2020년 경영대처

- 충남의 소상공인들이 2020년 경영을 위해 생각하는 전략은 ‘제품 및 서비스 다변화’가 가장 많았음
 - 제품 및 서비스 다변화→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 원가절감→ 인력효율화→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가격인하→ 업종전환→ 정보화→ 사업축소→ 폐업 후 취업 順
 - 사업축소, 폐업 후 취업, 계획 없음을 응답한 소상공인도 4.2%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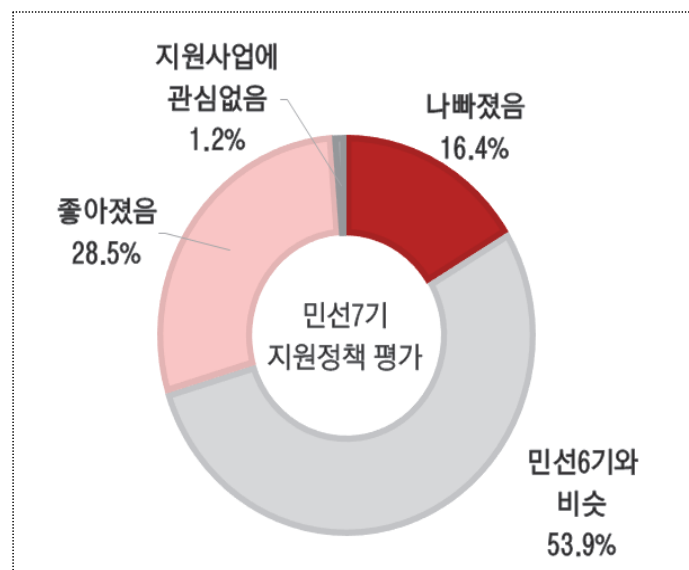
[그림 4] 2020년 경영 대처방안

03

충남 소상공인 지원사업 평가

1. 충남도 민선7기(2018~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 평가

- 충남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긍정답변이 부정답변보다 12.1%p 높게 나타남
 - 민선6기와 비슷하다 53.9%, 좋아졌다 28.5%, 나빠졌다는 의견 16.4%, 지원사업에 관심없다 1.2% 順
 - 충남 소상공인은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정책 평가

- 현재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업종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징을 살펴보면, 업체 소유 형태 중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가장 큰 불만을 표현했으며, 현 영업상태가 이익감소 상태라 응답한 사업체에서 정책불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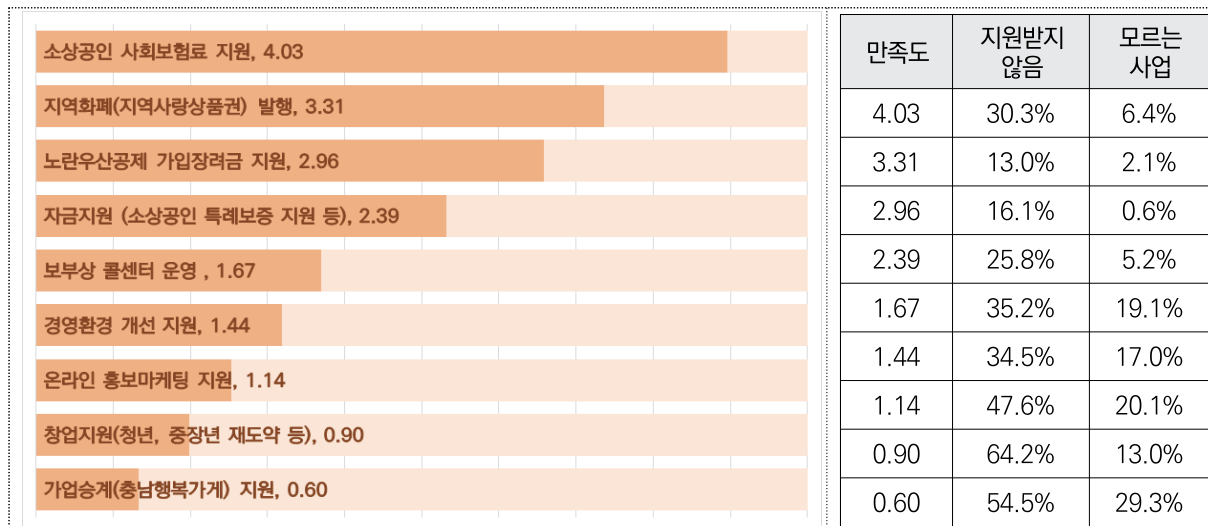
*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및 질병 등 사회재난 시 매출급감에 대한 월세 고정비용 지출 부담이 매우 크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6] 업체특성별 정책만족도 차이

구분		나빠졌음	민선6기와 비슷	좋아졌음	관심 없음
사업장 소유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66.7%	71.3%	69.1%	
	보증금 없는 월세	11.1%	2.2%	2.1%	
	전세	3.7%	3.9%	3.2%	
	소유	18.5%	22.5%	25.5%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현 영업상황	개점초기/시장진입단계	1.9%	1.7%	4.3%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9.3%	8.4%	12.8%	
	손익 분기점을 넘은 상태	18.5%	29.2%	45.7%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	51.9%	60.1%	34.0%	100.0%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	18.5%	0.6%	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2. 2019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 충남도가 시행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련한 만족도 평가(5점만점)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4.0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역화폐 발행(3.31),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지원(2.96), 자금지원(2.39)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지원받지 않고 있는 정책’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사업은 창업지원 64.2%→ 가업승계 54.5%→ 온라인홍보마케팅 47.6%
 - ‘모르는 사업’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사업은 가업승계 29.3%→ 온라인홍보마케팅 20.1%→ 보부상콜센터 19.1%
 - 창업지원 사업과 가업승계 사업은 특정목적에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이지만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은 온라인/배달 시장이 확대되는 요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적극적 홍보 필요. 모르는 사업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이 들어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



[그림 6]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 업체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 만족도 평가

- 연매출이 적은 업체인 경우,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업체들에서는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사업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0년 이상된 사업체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종업원수가 적은 경우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수가 많아질수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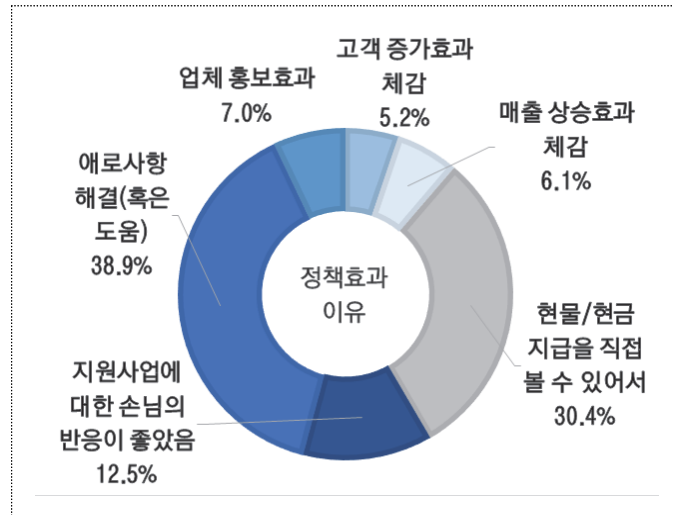
[표 7] 업체 특성별 지원사업 만족도 차이

(5점 척도)

구분전체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역 화폐 발행	자금 지원	보부상 콜센터 운영	창업지 원	경영 환경 개선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가업 승계
연 매 출	3천만원 미만	3.43	3.00	2.86	2.57	2.71	0.71	3.14	2.43	0.00
	3~5천만원 미만	2.54	3.25	3.14	2.11	2.36	1.36	1.54	1.21	1.50
	5천만원~1억원 미만	2.29	2.72	3.14	2.68	1.89	1.23	2.02	1.77	0.97
	1억원~2억원 미만	2.77	3.23	3.25	2.28	1.86	1.22	1.67	1.33	0.60
	2억원~3억원 미만	2.28	2.94	2.84	1.89	1.41	0.55	1.02	0.86	0.19
	3억원~5억원	2.70	2.56	3.08	2.60	1.06	0.56	1.02	0.48	0.40
	5억원~10억원	2.50	3.20	3.40	2.95	1.15	0.00	0.35	0.55	0.20
	10억원 이상	3.00	3.00	3.00	3.50	1.50	0.38	1.00	0.38	0.38
사 업 기 간	3년 미만	2.96	2.94	3.42	2.89	1.86	1.28	1.89	1.56	0.60
	3~5년 미만	3.04	2.96	3.19	1.58	1.92	0.77	1.81	1.54	0.78
	5~10년 미만	2.85	3.01	3.28	2.38	1.65	0.91	1.33	1.05	0.46
	10~20년 미만	2.63	2.44	3.53	2.64	1.44	0.69	1.39	0.97	0.58
	20년 이상	3.00	4.17	3.17	2.17	1.50	0.00	1.50	1.33	0.50
총 직 원 수	1명	1.36	2.96	3.73	1.94	1.57	1.16	1.38	1.07	1.50
	2명	2.58	3.04	3.30	2.24	1.71	0.79	1.46	1.19	0.60
	3명	3.52	2.85	2.85	2.88	1.67	0.63	1.53	0.93	0.62
	4명	3.47	2.63	3.47	3.63	1.89	1.63	1.47	1.84	0.59
	5명	4.20	3.00	3.80	3.60	2.40	1.20	1.40	2.20	0.38
	6명	4.25	3.75	1.50	1.50	0.00	0.00	0.00	0.00	1.42

3. 소상공인 지원사업별 만족이유

-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사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 30.4%, 지원사업에 대한 손님의 반응이 좋았다 12.5%, 업체 홍보효과 7.0%, 매출상승효과 6.1%, 고객 증가효과 5.2% 순으로 응답
- 전반적으로 사업운영 자체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매출 및 고객증가효과에 대한 체감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그림 7] 지원정책만족 이유

-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자금지원 순이었기에 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이유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음
 -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인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운영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응답이 16.5%로 두 번째 만족이유로 나타남
 -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발행 사업의 경우도 업체운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 35.7%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고, 매출 상승효과 체감 및 손님의 반응이 좋았다는 의견이 각각 9.2%로 나타났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애로사항 해결 33.3%, 업체 홍보효과 12.%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의견과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에 한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각 만족이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차이를 보였음.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의 경우 애로사항 해결과 고객증가효과 체감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화폐발행의 경우 매출상승효과 체감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의 경우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금지원의 경우 손님의 반응이 좋았다는 의견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8] 지원사업별 만족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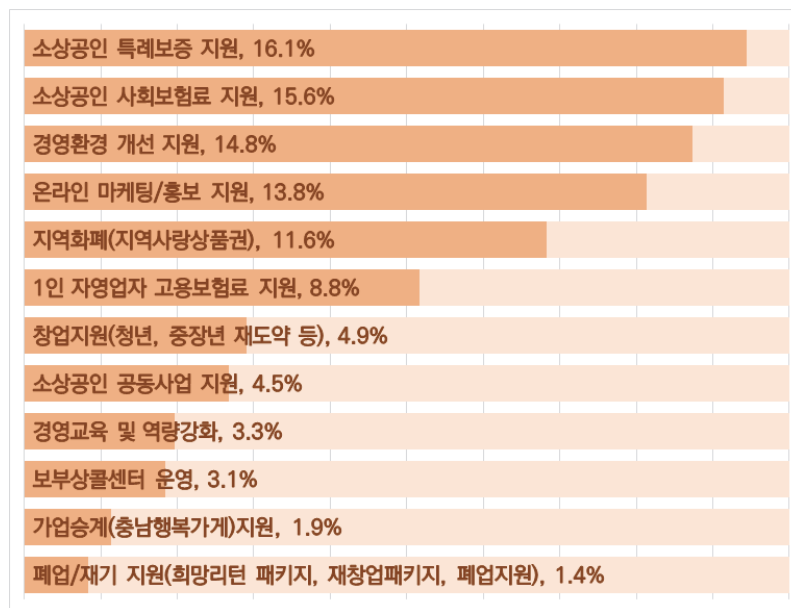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자금지원
고객 증가효과 체감	10.6%	4.1%		6.9%
매출 상승효과 체감	5.9%	9.2%		8.6%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어서	16.5%	35.7%	50.0%	31.0%
지원사업에 대한 손님의 반응이 좋았음	15.3%	9.2%	4.2%	17.2%
애로사항 해결(혹은 도움)	44.7%	36.7%	33.3%	31.0%
업체 홍보효과	7.1%	5.1%	12.5%	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04

충남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

1. 소상공인이 바라는 2020년 충남 지원사업

- 2020년 충남도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원받고 싶어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16.1%
 -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15.6%, 경영환경개선 14.8%, 온라인 마케팅/홍보 13.8%, 지역화폐 11.6%,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8%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소상공인이 바라는 충남도 지원사업

- 종업원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인사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희망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업원수가 많아질수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영환경지원, 온라인 마케팅/홍보 지원 사업에 대한 희망도가 높게 나타남

- 현 경영상태에 따른 희망 지원사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료보험 지원·지역화폐 발행·마케팅/홍보 지원사업
 손익분기점 미달 상태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특례보증 지원사업·마케팅/홍보 지원사업
 손익분기점 달성의 안정화단계에서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경영환경개선사업
 매출이익 감소상태에서는 경영환경개선사업·특례보증 지원사업
 업종전환 및 폐업 고려상태에서는 폐업/재기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에 대한 희망도가 크게 나타남
-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장진입 상태 이외 모든 경영상태에서 희망도가 높은 지원사업
- * 마케팅/홍보 지원사업은 업종전환/폐업고려 상태 이외의 모든 경영상태에서 희망도가 높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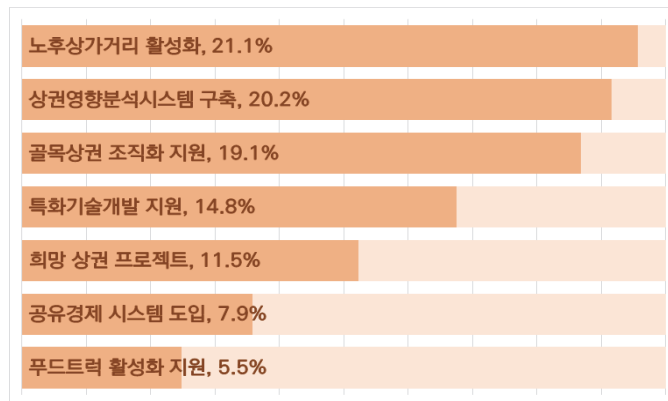
[표 10] 업체특성별 지원사업 희망비율 차이

(단위: %)

구분	종업원 수						현 경영상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시장 진입	손익 분기점 미달	손익 분기점	매출 이익 감소	폐업 고려
사회보험료	11.2	17.1	19.6	12.3	0	16.7	4.2	16.7	16.2	15.4	16.7
1인 고용보험료	15.4	6.9	5	3.5	6.7	25	25	8.3	8.3	8.4	9.5
지역화폐	13.5	11	8.7	15.8	20	16.7	25	10.4	12.1	10.9	11.9
특례보증 지원	14.2	16.9	17.4	15.8	20	0	4.2	17.7	16.8	16.2	11.9
보부상 콜센터	4.9	2.1	2.3	3.5	0	16.7	4.2	4.2	4.1	2.1	4.8
마케팅/홍보	14.2	12.9	16.4	10.5	20	0	16.7	15.6	11.4	16	0
창업지원	4.9	5.5	3.7	7	0	8.3	8.3	6.3	7	2.9	9.5
경영환경	10.9	16.2	16.4	17.5	13.3	16.7	8.3	11.5	13.7	17.3	4.8
가업승계	1.5	2.9	0.9	0	6.7	0	4.2	2.1	1.9	1.8	2.4
경영교육	3	3.1	3.2	7	6.7	0	0	6.3	3.5	3.1	0
공동사업	4.1	4	5.9	5.3	6.7	0	0	1	5.1	4.9	7.1
폐업/재기 지원	2.2	1.4	0.5	1.8	0	0	0	0	0	1	21.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충남에 도입 희망하는 사업

- 충남도에 새롭게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 20.2%,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19.1%, 특화기술개발 지원 1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충남도에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25.3%)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도소매업은 노후상가거리 활성화(25%)를, 음식 및 숙박업·기타 서비스업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26.5%, 22.6%)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자의 경우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이 22.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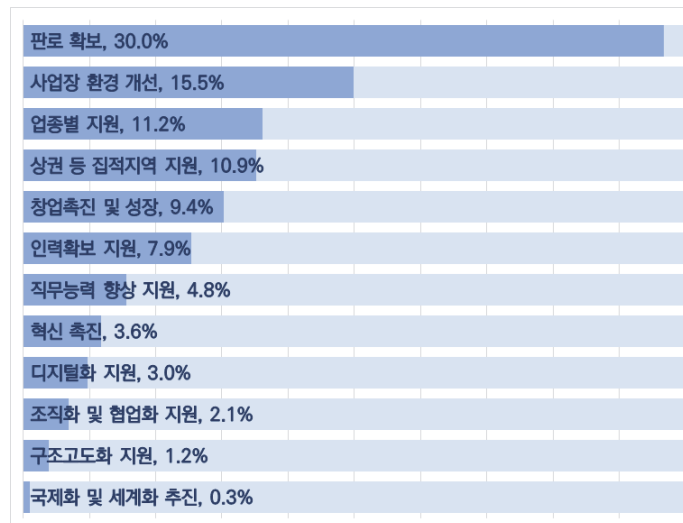
[표 11] 업체특성별 도입희망 사업 비율 차이

(단위: %)

구분	업종				종업원 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9.0	7.7	6.8	7.9	10.7	7.5	4.1	10.5	20.0	0.0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	25.3	17.9	17.9	19.5	23.6	18.6	17.8	18.4	30.0	37.5
특화기술개발 지원	22.3	12.5	9.9	14.6	12.4	12.9	21.2	15.8	10.0	25.0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3.6	6.0	6.2	6.1	5.6	6.8	3.4	2.6	10.0	0.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9.6	17.9	26.5	22.6	24.7	17.5	18.5	13.2	10.0	0.0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15.7	25.0	24.1	19.5	18.5	22.9	20.5	23.7	0.0	37.5
희망 상권프로젝트	14.5	13.1	8.6	9.8	4.5	13.9	14.4	15.8	20.0	0.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소상공인기본법(2021년 시행) 관련 정책중요도

- 소상공인기본법에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에 대한 중요도는 판로확보 3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15.5%→ 업종별 지원 11.2%→ 상권 등 집적지역 지원 10.9% 順



[그림 10]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중요도

[표 12] 업체특성별 중요도 차이

(단위: %)

구분	업종				사업기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창업촉진 및 성장	13.3	6.0	7.4	11.0	11.1	7.7	8.8	8.3	33.3
인력확보 지원	10.8	3.6	7.4	9.8	13.9	7.7	6.2	13.9	0.0
직무능력 향상 지원	9.6	3.6	3.7	2.4	0.0	11.5	3.1	16.7	0.0
판로 확보	33.7	46.4	17.3	22.0	30.6	19.2	32.3	25.0	16.7
디지털화 지원	4.8	4.8	1.2	1.2	0.0	3.8	3.1	5.6	0.0
혁신 촉진	2.4	6.0	3.7	2.4	5.6	0.0	3.5	5.6	0.0
사업장 환경 개선	8.4	8.3	24.7	20.7	22.2	7.7	15.5	13.9	16.7
국제화 촉진	0.0	0.0	0.0	1.2	0.0	0.0	0.4	0.0	0.0
조직화 지원	3.6	2.4	2.5	0.0	2.8	7.7	1.3	2.8	0.0
업종별 지원	9.6	10.7	12.3	12.2	11.1	26.9	10.6	5.6	0.0
집적지역 지원	2.4	7.1	19.8	14.6	2.8	7.7	14.6	0.0	0.0
구조고도화 지원	1.2	1.2	0.0	2.4	0.0	0.0	0.4	2.8	3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모든 업종에서 판로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

* 2순위로 중요한 요소로 제조업은 창업촉진 및 성장 지원(13.3%), 음식 및 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 환경 개선분야(24.7%, 20.7%)를, 도소매업은 업종별 지원 차별화(10.7%)를 응답함

- 사업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3년미만 : 판로확보, 사업장 환경개선

3~5년미만 : 업종별 지원, 판로확보

5~10년 미만 : 판로확보, 사업장 환경개선, 집적지역 지원

10년~20년 미만 : 판로확보, 직무능력향상 지원

20년 이상된 장기사업체 : 구조고도화 지원, 창업촉진 및 성장지원

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경영안정 지원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폐업 및 재기 지원 16.7%→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16.1%→ 사업영역 보호 11.5% 順

- 업종별로는 순위는 차이를 보임

제조업 : 경영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증진

도소매업 : 경영안정 지원→ 사업영역 보호

음식 및 숙박업: 폐업 및 재기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서비스업 : 경영안정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사업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3년 미만 : 경영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증진

3년~5년미만 : 경영안정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조세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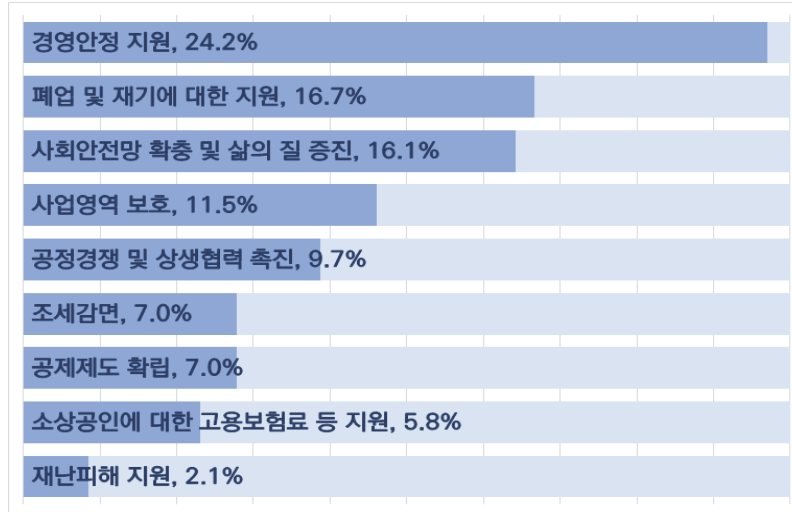
5년~10년미만 : 경영안정 지원→ 사업영역 보호→ 고용보험료 지원

10년 이상 : 경영안정 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즉,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3년 이상된 사업체 부터 폐업 및 재기지원에 대한 사업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특징적으로, 조세감면 사업은 3~5년미만 사업체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5~10년미만 사업체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공제제도는 10년이상 업체에서 관심을 보임.



[그림 11] 소상공인 보호시책에 관한 중요도

[표 13] 업체특성별 중요도 차이

(단위: %)

구분	업종				사업기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경영안정 지원	37.3	21.4	14.8	23.2	23.7	25.0	41.7	23.1	24.2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20.5	11.9	17.3	14.6	16.7	8.3	0.0	17.9	16.1
폐업 및 재기 지원	8.4	15.5	25.9	17.1	14.5	25.0	8.3	23.1	16.7
공제제도 확립	6.0	7.1	6.2	8.5	6.1	0.0	0.0	11.5	7.0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7.2	11.9	11.1	8.5	10.5	8.3	0.0	9.0	9.7
사업영역 보호	10.8	16.7	11.1	7.3	13.2	0.0	33.3	5.1	11.5
재난피해 지원	1.2	1.2	2.5	3.7	2.2	0.0	0.0	2.6	2.1
고용보험료 등 지원	7.2	8.3	4.9	2.4	6.6	8.3	16.7	1.3	5.8
조세감면	1.2	6.0	6.2	14.6	6.6	25.0	0.0	6.4	7.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소상공인 지원정책관련 기타의견

- 충남의 소상공인은 관광지 홍보, 경영지원금 확대, 지원정책 홍보, 영세상인 지원, 마케팅지원, 창업관련 교육, 특산물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별 특산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경영지원금 확대 및 조건 완화, 지원정책에 대해 홍보를 하여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음
 - 소상공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경영지원금, 관광,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조성, 창업관련 교육 및 창업지원, 지역상품권사용 및 지역관광서 구매유도 등에 대해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2]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대한 기타의견

05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충남의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130,756개의 사업체 , 257,572명의 종사자
 - 도내 사업체의 87.7%, 종사자수의 31.9%를 차지
- 2019년 경영상태에 대해 ‘침체했다’는 부정의견(56.7%)이 ‘좋았다’는 긍정의견(8.8%)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연매출의 변화는 감소 54.8%, 증가 6.1%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음.
- 2020년의 예상 경영환경에 대한 응답도 ‘침체할 것’이라는 부정의견(64.3%)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의견(7.3%)보다 높게 나타남
 - 부정의견은 2019년 비율보다 높게, 긍정의견은 2019년 비율보다 낮게 나옴
 - 특히 장기적 경기불황의 지속과 업계의 경쟁심화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충남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긍정답변(28.5%)이 부정답변(16.4%)보다 12.1%p 높게 나타남
 - 민선6기와 비슷하다 53.9%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책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련한 만족도 평가(5점만점)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4.03)→지역화폐 발행(3.31)→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지원(2.96)→ 자금지원(2.39)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사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이 38.9%→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 30.4%→ 지원사업에 대한 손님의 반응이 좋았다 12.5%→ 업체 홍보효과 7.0%→ 매출상승효과 6.1%→ 고객 증가효과 5.2% 순으로 응답
 -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운영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44.7%→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 16.5%
 -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발행 사업 :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36.7%→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었다 35.7%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어서 50%→애로사항 해결 33.3%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 사업: 현물/현금 지급을 직접 볼 수 있다 ·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된다 각각 31%
- 2020년 충남도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원받고 싶어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16.1%
 -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15.6%, 경영환경개선 14.8%, 온라인 마케팅/홍보 13.8%, 지역화폐 11.6%,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8% 순으로 나타남
- 충남도에 새롭게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은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21.1%
 - 다음으로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 20.2%,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19.1%, 특화기술개발 지원 14.8%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중, 법에서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에 대한 중요도는 판로확보 3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15.5%→ 업종별 지원 11.2%→ 상권 등 집적지역 지원 10.9%
- 동 법의 소상공인 보호시책에 대한 중요도는 경영안정 지원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폐업 및 재기 지원 16.7%→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16.1%→ 사업영역 보호 11.5%

2. 제언

- 장기적 경기불황의 지속과 업계의 경쟁심화로 인한 부정적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감염우려로 오프라인 상점의 발길이 더욱 줄었으나 온라인상점, 배달서비스, 매장픽업 서비스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필요
- 온라인/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높아진 요즘,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과 같이 오프라인매장 이외의 판매채널을 발굴 및 전환해주는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 필요.
 - 충남 소상공인의 47.6%는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았음
 - 충남 소상공인의 20.1%는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음.
- 충남 소상공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원정책은 사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현물/현금 직접 지급되는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었으나 지원받지 않았다는 소상공인도 30% 정도로 나타나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으로 충남의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지원정책은 판로확보정책, 보호정책은 경영안정 지원.
 -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두가지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채널 다변화를 위한 지원시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즉시적, 직접적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정 마련 등 확충 필요
- 만족도 높은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위기에 강한 건강한 체질의 소상공인으로 체질 개선을 도와주는 정책도 필요
 -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오프라인에서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해 견뎌낼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